



소단원 형성 평가

3. 담화와 의사소통

(1) 담화의 개념과 특성

2학년 반 번 이름

점수

확인

[01~02]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우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습니다. 다음 대화를 살펴볼까요?



“누나, 저 놀이 기구 무서울 것 같아.”처럼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을 ‘발화’라고 합니다. 위 만화에서 동생이 한 말과 누나가 한 말 각각은 발화입니다.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‘담화’라고 합니다. 동생과 누나가 나눈 대화 전체를 담화라고 할 수 있지요.

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‘화자’, 듣는 사람인 ‘청자’, 전달하려는 ‘내용’, 담화가 이루어지는 ‘맥락’으로 구성됩니다.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

글의 주제 파악

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담화란 무엇인가?
- ② 입장 바꿔 생각하기
- ③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
- ④ 가족 간 대화, 충분하나요?
- ⑤ 관계를 개선하는 말하기 방법

담화의 개념 이해

0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담화는 화자, 청자, 내용, 맥락으로 구성된다.
- ② 만화에서 누나와 동생은 화자이면서 청자이다.
- ③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을 ‘발화’라고 한다.
- ④ 누나와 동생의 대화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어 담화에 속한다.
- ⑤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장면에서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‘담화’라고 한다.

담화의 구성 요건 이해

03 <보기>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[보기]

공기가 상쾌합니다. 과일도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.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.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.

- ① 접속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어색하다.
- ② ‘건강한 생활 습관’을 주제로 한 글이다.
- ③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.
- ④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.
- ⑤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.

[04~08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가 운동은 몸에 좋다.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.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.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.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.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, 적당하게 해야 한다.

나 운동은 몸에 좋다.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. (**㉠**)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.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.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. 이 점을 기억하고, 적당하게 해야 한다.

다

가: 이번엔 잘 맞을까요?

나: 잘 맞을 것 같은데요.

가: 안 맞으면 어떡하죠?

나: 제가 볼 땐 잘 맞을 것 같아요.

라

영호: 얼마 뒤면 추석이네.

진기: ㉠난 시골 큰집에 갈 거야.

다숨: 나는 임진각에 갈 거야. 할아버지께서 해마다 가 시거든.

영호: 저런, ㉡가슴 아픈 일이야.

진기: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.

다숨: 그러게.

담화의 구성 요건 이해

04 **서술형** (가)와 (나)를 비교하여 의미가 잘 전달 되기 위해 담화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.

- 조건
- (가)와 비교하여 (나)에만 드러나는 특성을 서술할 것
 - 관련된 담화의 구성 요건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

접속 표현 이해

05 (나)의 **㉠**에 들어갈 접속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한편 ② 그리고 ③ 하지만
④ 더욱이 ⑤ 따라서

담화의 맥락 이해

06 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.
②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.
③ 어디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.
④ 담화를 해석할 때에는 사회·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.
⑤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.

담화의 맥락 이해

07 (라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세 사람 모두 우리나라의 추석 풍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.
②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임진각이 아니라면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.
③ 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·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.
④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호가 ㉠처럼 말한 까닭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.
⑤ 진기가 영호의 말에 ㉡처럼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까닭은 영호와 진기가 동일한 사회·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담화의 특성 파악

08 **서술형** (다)와 (라)를 통해 알 수 있는 담화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.

[09~13]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십시오.

가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.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. 극장이 10층에 있어서 승강기를 탔는데, 아저씨 한 분이 같이 탔습니다. ㉠승강기가 움직이자마자 그 아저씨가 방귀를 ‘뽕!’ 끼었습니다.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,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습니다. ㉡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, 한편으로 우습기도 한 것은 아저씨도 마찬가지로인 듯했습니다.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짓다가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. 아저씨는 4층에서 내렸습니다.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. 저는 곧 더욱 황당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 한 채 재미있는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.

나 승강기가 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탔습니다. ㉢사람들이 타자마자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겁니다. (㉣) 코를 막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.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. 방귀를 뀜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. ㉤묵묵히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. ㉥말하면 더 방귀 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10층을 올라가는 게 100층을 올라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.

다 <수업 중인 교실>

선생님: (지각한 학생에게) ㉦지금 몇 시니?

학생: 아홉 시 삼십 분입니다.

통일성 이해

09 **서술형** 통일성을 고려하여 (가)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쓰고,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십시오.

조건

- 고쳐 써야 할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밝히고, 어떻게 고칠 것인지 서술할 것
- 고쳐 써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

응집성 이해

10 담화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(가)와 (나)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문장 앞에 ‘그런데’를 추가한다.
- ② ㉡: ‘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, 한편으로 우습기도 한 것은’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므로 ‘그것은’이라고 고친다.
- ③ ㉢: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문장 앞에 ‘그런데’를 추가한다.
- ④ ㉣: 앞 문장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므로 문장 앞에 ‘그래서’를 추가한다.
- ⑤ ㉤: 앞에 있는 “방귀를 뀜 것은 제가 아니라고”라는 표현을 지시하는 ‘그렇게’를 문장 앞에 추가한다.

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 이해

11 (나)의 ㉣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?

- ① 한편
- ② 그래서
- ③ 그러다가
- ④ 그렇지만
-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

상황 맥락 파악

12 (다)의 상황 맥락을 잘못 설명한 것은?

- ①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실이다.
- ② 화자와 청자는 선생님과 학생 관계이다.
- ③ ㉦의 의도는 학생이 늦은 것을 꾸짖기 위함이다.
- ④ 학생은 선생님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.
- ⑤ 화자의 청자의 관계가 다르거나,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면 ㉦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.

- 13** **서술형** (다)의 상황 맥락이 <보기>와 같이 바뀌었을 때, 빈칸에 들어갈 동생의 대답을 <조건>에 맞게 쓰시오.

[보기]
<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생에게 말하는 상황>
형: 지금 몇 시니?
동생: ()

- [조건]
▪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서술할 것
▪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의 대답을 서술할 것

- 14** **서술형** <보기>의 담화를 읽고,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를 서술하시오.

[보기]
<수민이의 집에 놀러온 파블로>
수민이의 엄마: 반가워, 파블로
수민이의 아빠: ㉠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.
파블로: 수민아,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차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?

- [조건]
▪ ㉠에 담긴 우리 언어문화의 특징을 서술할 것
▪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를 사회·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

- 15** <보기>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보기]
영국에서 온 줄리엣은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가끔 말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. 얼마 전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잠깐 물건을 전하러 오신 적이 있었다.

줄리엣: 차 한잔 드릴까요?

손님: 괜찮아요.

줄리엣: 아, 네.

손님: …….

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온 뒤

줄리엣: 낮에 어머니 친구분께서 잠깐 오셔서 이것을 주고 가셨어요.

시어머니: 응, 친구에게 들었다. 그런데 마실 것도 안 주었다고 친구가 조금 서운해하더라.

줄리엣: 손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요?

시어머니: 아,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그랬구나. 그런데 손님이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권하는 게 좋다.

- ① 줄리엣은 손님이 “괜찮아요.”라고 한 말의 의미를 손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였다.
- ② 줄리엣은 이후에 같은 상황이 오면 손님이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차를 권할 것이다.
- ③ 손님은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.
- ④ 손님이 줄리엣을 배려하였다면 “괜찮아요.” 대신 “고마워요. 한잔 주겠어요?”와 같이 말했을 것이다.
- ⑤ 줄리엣이 손님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